

충북MBC 웹드라마 <인물별 대사>

④ 최유안(여성,15세,중학생)

1. 언니. 한체리 맞죠? 그 백만 , 아니 얼마전에 개 망하고 나락간 인플루언서. 왜 여기 시골짜에서 커플 행세를 하고 있어요? 그것도 권도영한테. 무슨 수작이에요? (체리 행색을 훑으며) 끝은 왜 그래요? 암튼. 어른들한테 다~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.

2. 할머니한테 말하기만 해봐요. 애들이 촌년이라고 무시하고 놀려도 난 괜찮거든요? 언니 그 동화 알아요? 미운오리새끼. 엄마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버림받은 못난이가 결국 백조되는... 아무튼 나는, 내가 그 동화 속 아기백조다 생각해요. 불쌍하게 보지마요!

3. 할머니는 남 아픈게 뭐 그렇게 신이나?

그럼 엄마아빠 이혼했을 때도, 나 여기 버려졌을도 그렇게 소문내고 다녔어?

(복녀 : 누굴 버려? 내새끼를 누가 버렸다고 그랴?)

버려진 거지. 아니 할머니처럼 말하면 나는 침부터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하는거 아냐?